

번호 10-5

제 목	국문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발견된 고혈압환자의 치료실태와 관련요인			
	영문	Treatment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of the Hypertensives Detected Through Community Health Promotion Program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감신, 김인기, 천병렬, 이상원, 오희숙, 안순기, 진대구, 정영연 ¹⁾ , 이경수 ²⁾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구미시보건소 ¹⁾ ,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²⁾			
	영문	Sin Kam, In-Ki Kim, Byung-Yeol Chun, Sang-Won Lee, Hee-Sook Oh, Soon-Gi Ahn, Dae-Gu Jin, Young-Yeon Jung ¹⁾ , Kyeong-Soo Lee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umi Health Center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²⁾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1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유병률이 높으며, 고혈압은 합병증으로써 뇌혈관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매우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이다.</p> <p>고혈압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잘 관리될 수 있는 질환으로 각종 연구결과 증명되어, 고혈압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못지 않게 발생한 고혈압 환자의 적절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p> <p>그간 고혈압환자의 치료 순응도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고혈압 환자가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 대한 건강신념을 파악하여 실제로 고혈압환자로 이환되었을 때 치료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추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p> <p>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통해 새로이 발견된 고혈압환자들을 추적 조사하여 치료실태를 알아보고 고혈압 환자로 판명되기 이전, 즉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 대한 건강신념과 고혈압 치료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1998년 12월에서 1999년 2월 사이에 경북 구미시의 3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 6,977명(남자 3,237명, 여자 3,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또는 면접을 통하여 일반적 특성,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한 고혈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한 후 혈압 측정과 신체계측을 하였다(일차조사).</p>					

일차조사 결과 새로이 발견된 고혈압 의심자가 603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해 199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추가로 혈압 측정후 환자 재분류를 시행한 결과 373명이 확정형 고혈압 환자(160/95mmHg)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1개월 후 그간의 치료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였는데 치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료된 고혈압 환자는 282명으로 75.6%가 추적조사되었다(이차조사).

3. 연구 결과

신규 고혈압환자의 1개월간 지속적 치료율은 11.7%, 간헐적 치료율은 11.4%로 치료경험률은 23.1%에 불과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치료경험률이 높았다.

미치료군의 미치료 이유는 '아픈데가 없어 치료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가 45.6%로 가장 높았고, '혈압이 크게 높지 않아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가 43.2%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픈데가 없어 치료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치료경험군의 주 치료기관은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이 57.9%로 가장 높았고, 병의원 29.8%, 기타 기관 12.3%였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주 치료기관의 차이는 없었다.

고혈압 미치료시 중풍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경우, 고혈압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 치료하면 정상혈압 유지가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 치료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치료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치료경험률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고혈압으로 진단 받기 이전에 두통과 같은 고혈압 증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고혈압 치료를 경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주위에 고혈압으로 인해 중풍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지속적 치료율이 14.3%, 간헐적 치료율이 20.6%인 반면, 없는 경우는 지속적 치료율 11.4%, 간헐적 치료율 8.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고혈압에 대해 지난 1년간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속적 치료율이 17.0%, 간헐적 치료율이 20.8%로 고혈압에 대해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의 지속적 치료율 10.6%, 간헐적 치료율 7.8%에 비해 고혈압 치료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지속적 치료와 간헐적 치료를 합하여 치료경험으로 한 후 치료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건강신념모형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료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건교육 경험유무와 주위의 중풍환자 유무로 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비차비 2.18), 주위에 중풍환자가 있는 경우(비차비 2.20) 치료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4. 고찰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 고혈압사업을 통해 발견된 고혈압환자들의 1개월간 치료경험률은 23.1%(지속적 치료율 11.7%, 간헐적 치료율 11.4%)로 낮아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치료 경험에는 보건교육경험, 주위의 중풍환자 유무 등 환자의 행태를 강화시키는 요인인 행동계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미치료 이유로는 '혈압이 높지 않아서'도 주요 이유였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에게 본인이 고혈압 환자임을 주지시키고, 평소에 보건교육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고혈압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